

한·중간 무역경쟁력 분석

—섬유·전기전자·운송·기계산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rade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China

이성아(Sung-Ah Lee)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신경수(Kyung-Soo Shin)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 론 |
| II.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 참고문헌 |
| III. 한·중간 주요산업의 무역경쟁력 분석 | Abstract |

Abstract

First,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the textile industries in South Korea has been weakening, whereas, the counterpart in China has been growing as the main export industries. Second,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the mechanics industries in South Korea has been increasing and appearing as the new promising strategic export industries. And, the counterpart in China also shows that it has been rising, while the country's level of the imports specialization index has been weakening. Third,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the transportation industries in South Korea has been rising as the export-oriented and at the same time, privileged industries. And, China has also been rising as South Korea has been in the case, whereas, imports specialization index has been weakening. Fourth,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in South Korea has relatively been at the very high level, giving rise to the core export-privileged industries in the South Korea. And, China has been emerging as the new strategic export industries, as its industry structure has been shifted from the import- specialization and export-specialization industries. Fifth, it is indicated that the trade in the both South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of fable materials, mechanics goods for computer & office, and goods for electric mechanics has been going favorable and brisk.

Key Words : Trade Competitiveness , RCA Index, TSI Index, GL Index

I. 서 론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은 수출 2,847억 달러, 수입 2,612억 달러를 달성하여 무역규모가 5,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수출입이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사상 최대의 무역실적을 이뤄냈다. 또한 23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둬들여 무역수지가 2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는 안정적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수출 호조세는 최근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고유가추세와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강세 등의 악조건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서 이러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과히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수출호조세는 극심한 내수부진과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제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국가 간 수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경제는 이러한 수출호조에 자만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고, 그 무역경쟁에서 점차 뒤쳐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중간 무역경쟁력에 관한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비중은 14.9%에서 16.3%로 높아졌으며 중남미·아세안 등으로의 수출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았던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은 16.9%에서 1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수출지역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지역의 다변화 추세 속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전년의 19.6%에서 20%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았던 미국을 이미 앞지른 상태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세계무역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경제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과의 무역경쟁력은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적 배경 하에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한-중간 무역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의 성장원동력은 수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그 대상국과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의 본문에서 살펴볼 수출비중에서도 보여지듯이 한국의 주력수출은 섬유·전기전자운송기계산업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산업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지향산업으로 이전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던 섬유산업이 지금은 사양화 되고 있고, 수출경쟁력에서도 전위를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섬유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섬유산업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논문에서는 섬유·전기전자운송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경쟁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논문의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중 무역경쟁력의 주요 경쟁상품인 섬유·전기전자·운송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중간 주요 산업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논문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후행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II.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CEPII(the 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에서 발간한 CHELEM database(Harmonized Accounts on Trade and the World Economy)와 UN comtrade data base의 SITC Rev2. data이다. CHELEM data는 산업의 구성을 대분류와 대분류 아래 품목군별로 다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간의 무역경쟁력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

2. 분석방법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 시장점유율을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모든 국가의 경제규모를 표준화함으로써 각국의 비교우위체제에 대해 추정이 가능하게 한 지수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B. Balassa가 고안한 방법으로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산업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한 지수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한 나라 특정 산업의 수출이 세계 전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전체의 수출에서 그 나라의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눔으로써 구해진다. 만약 한 나라의 특정 수출산업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그 나라 전체 상품의 시장점유율보다 크다면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이는 해당 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경쟁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수 크기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국가 간 비교우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기존의 SITC, HS 코드의 무역데이터들은 각각 5-digit, 6-digit으로 세분화되어 품목별로 표시가 되어 있으나 분류의 기준이 각각 상이하고 기준에 흔히 사용하는 SIC 산업분류와도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분류의 편의상 CHELEM 세계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RCA_{ij} = \frac{X_{ij}/TX_j}{X_i/TX} = \frac{X_{ij}/X_i}{TX_j/TX}$$

X_{ij} : i국 j상품의 대세계 수출액

TX_j : 세계 전체의 j상품 수출액(수입액)

X_i : i국의 총수출액

TX :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수입액)

한 나라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많은 경우 현시비교우위지수만으로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산업 내 무역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2) 무역특화지수(TSI : Trade Specializ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 품목의 수출과 수입의 차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이다. 무역특화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무역특화지수가 0의 값을 가질 경우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우면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우면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SI = \frac{X - M}{X + M}$$

X : 전체 수출액

M : 전체 수입액

3) 산업 내 무역지수(GL 지수 : Grubel-Lloyd Index)²⁾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분석은 Heckscher-Ohlin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Michalely(1962), Balasaa(1963) 등의 연구를 통해 요소부존도가 비슷한 선진국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Heckscher-Ohlin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업내 무역에 대한 연구가 Grubel & Lloyd(1975)와 Helpman & Krugman(1985)등에 의해 대두되었다.

산업 내 무역(IIT : intra-industry trade)이란 특정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산업 내 무역의 중요성은 무역자유화의 진전, 정보통신을 비롯한 신기술의 발전, 개발

2) 세분화된 품목별로는 일방무역(산업간 무역)일지라도 품목을 포괄하는 산업의 분류에서는 수출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산업내 무역으로 파악된다. 산업의 분류를 세분화할수록 이러한 부분적 편익이 없어지지만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SITC, HS 산업분류는 최하위 분류조차 품목군이기에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산업내 무역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산업분류가 세분화 될수록 산업내 무역지수가 좀 더 정확할 반면 산업분류가 포괄적일수록 산업내 무역이 과장되는 부분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도상국들의 급부상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국제 분업체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데 있다. 왜냐하면 국제 분업체제의 변화는 일국의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후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GL지수는 산업 내 무역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GL지수가 1의 값을 가진다면 특정 산업에서의 수출과 수입이 동일하여 산업 내 무역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0의 값을 가진다면 수출이 0이거나 수입이 0이어서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간 무역 혹은 일방 무역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GL지수가 1의 값에 가까워질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고, 양국 간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GL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L = \frac{(X_i + M_i) - |X_i - M_i|}{X_i + M_i}$$

i : 분석 대상 산업

Ⅲ. 한·중간 주요 산업의 무역경쟁력 분석

1. 한·중 무역구조

1) 한국과 중국의 국가별 수출비중

<표 1>을 통해 한국의 국가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18.0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출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1990년의 29.91%에 비하면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0년 2.10%에서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2년에는 17.90%를 기록하고 있다.³⁾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0년 19.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7.83%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표 2>를 통해 중국의 지역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비중은 1990년 8.34%에서 2002년에는 21.27%까지 증가하였다. 199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14.51%로 가장 높았지만 2002년 현재에는 13.59%로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보다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0년 2.0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4.5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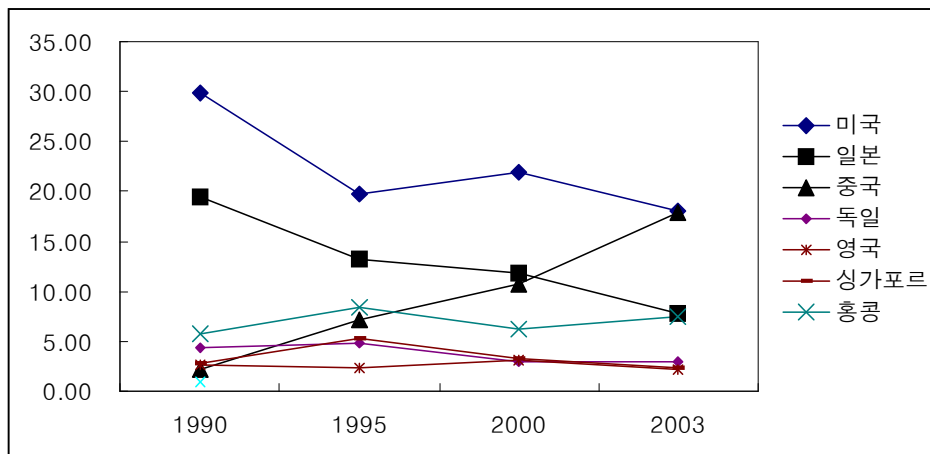
3) 본 연구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2002년까지만 분석하였으나 2005년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61,913,983 천불, 대미 수출액은 41,342,584 천불로 현재는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미국을 앞질러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다.(통계자료 : 무역협회)

〈표 1〉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

지역 \ 연도	1990	1995	2000	2002
미국	29.91	19.74	21.95	18.04
일본	19.44	13.16	11.88	7.83
중국	2.10	7.09	10.71	17.90
프랑스	1.73	1.20	1.02	0.97
독일	4.38	4.86	2.99	3.01
이태리	1.15	0.84	1.11	1.37
네덜란드	1.48	1.25	1.54	1.34
영국	2.69	2.34	3.12	2.19
싱가포르	2.78	5.31	3.28	2.27
홍콩	5.81	8.48	6.22	7.48
필리핀	0.77	1.18	1.95	1.50
말레이시아	1.09	2.37	2.04	2.05
세 계	100	100	100	100

주 : 수출비중=A국의 B국으로의 수출액/A국의 총 수출액

[그림 1]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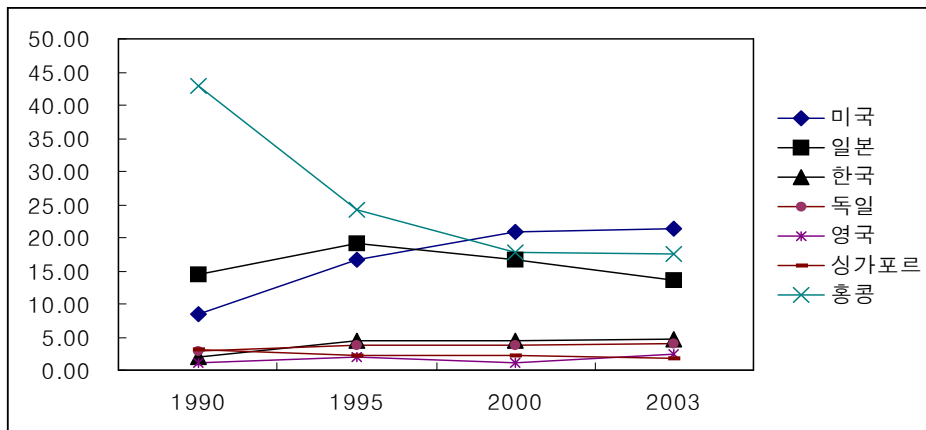


<표 2>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

지역 \ 연도	1990	1995	2000	2002
미국	8.34	16.71	20.93	21.27
일본	14.51	19.21	16.72	13.59
한국	2.03	4.38	4.53	4.59
프랑스	1.04	1.24	1.49	1.68
독일	2.99	3.83	3.72	4.01
이태리	1.35	1.40	1.53	1.53
네델란드	1.46	2.19	2.68	3.11
영국	1.04	1.89	1.12	2.49
싱가포르	3.18	2.25	2.31	1.88
홍콩	42.89	24.18	17.86	17.48
필리핀	0.34	0.68	0.59	0.66
말레시아	0.55	0.86	1.03	1.41
세 계	100	100	100	100

주 : 수출비중=A국의 B국으로의 수출액/A국의 총 수출액

[그림 2]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단위 : %)



2)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수출비중⁴⁾

한국의 대세계 수출비중을 산업별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산업은 1980년 29.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여 2002년 현재에는 10.10%를 보이고 있다. 한국 섬유산업의 사양화는 대세계 수출비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계산업은 1980년 10.46%에서 그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2년 현재에는 14.1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운송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수출비중은 1980년 이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송산업은 1980년 2.43%에서 2002년에는 11.46%로 성장하였고, 전기·전자산업은 1980년 14.03%에 2002년에는 38.17%로 성장하였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가장 높은 수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전기·전자산업과 같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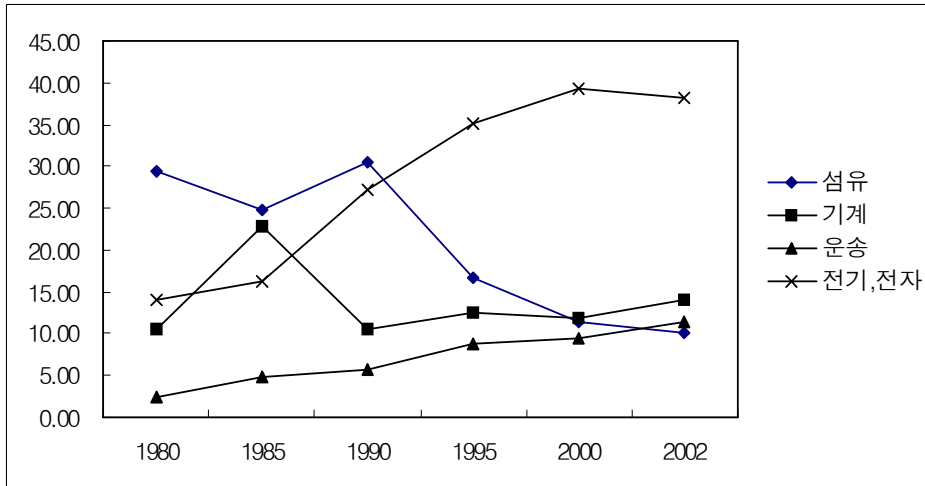
<표 3>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

연도 산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에너지	0.16	3.01	1.07	2.15	5.82	4.32
식음료	15.17	9.54	3.96	2.46	1.61	1.61
섬유	29.51	24.87	30.60	16.59	11.51	10.10
나무, 제지	6.71	4.86	5.78	3.72	2.94	2.73
화학	10.86	6.72	7.77	10.79	11.12	11.57
철강	9.33	6.00	5.56	4.47	3.89	3.65
비철금속	0.80	0.44	0.65	0.89	1.19	1.24
기계	10.46	22.93	10.53	12.61	11.87	14.13
운송	2.43	4.73	5.71	8.84	9.53	11.46
전기·전자	14.03	16.31	27.24	35.17	39.20	38.17
기타	0.53	0.59	1.12	2.30	1.31	1.03

주: 산업별 수출비중=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액/한국의 대세계 총 수출액

4) 본 연구의 분석은 1990년에서 2002년까지를 전제로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1980년부터 그 구조가 급변하였으므로 1980년부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중국 산업별 수출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 (단위 : %)

산업 \ 연도	1995	2000	2002
에너지	3.80	8.10	4.44
식음료	1.69	0.90	0.69
석유	29.44	19.90	14.07
나무, 제지	5.34	4.48	3.22
화학	28.31	24.66	21.79
철강	6.26	6.31	6.08
비철금속	2.15	2.68	2.24
기계	10.22	6.95	8.38
운송	2.23	0.79	1.11
전기·전자	10.49	25.03	37.69
기타	0.05	0.20	0.28

주 : 산업별 수출비중=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액/한국의 대중국 총 수출액

첫째, 1995년 섬유산업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9.44%로 대중국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섬유산업의 사양화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해 2002년에는 14.07%까지 급속하게 몰락하였다.

둘째, 기계산업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1995년 10.22%에서 2002년에는 8.38%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과거 한국이 중국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계 및 장비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셋째, 운송산업의 수출비중은 2002년에는 1.11%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은 대중국 수출비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전기·전자산업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1995년 10.49%에서 2002년에는 37.69%로 급성장하였다.

다섯째, 1995년 이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중 수출품목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늘어나는 교역규모와 더불어 수출품목도 다양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우위를 차지하는 산업의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1980년대에 에너지산업과 식음료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수출비중이 2002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전기·전자산업, 기계산업, 나무 및 제지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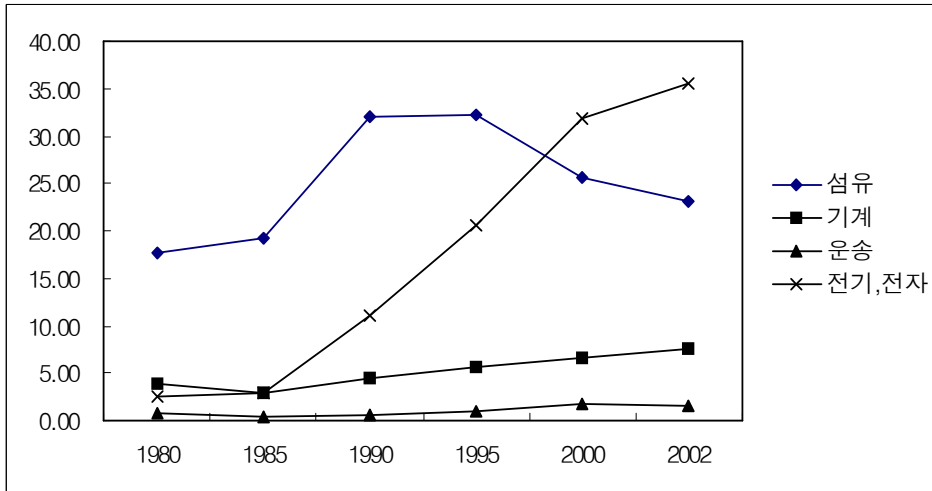
둘째,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2000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셋째, 섬유산업, 나무 및 제지산업, 기계산업, 운송산업, 전기·전자산업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중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

산업 \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에너지	27.26	34.14	9.86	3.56	2.80	2.40
식음료	27.92	24.17	18.25	8.94	6.21	5.23
섬유	17.75	19.25	32.12	32.27	25.55	23.18
나무, 제지	4.94	4.59	10.92	12.25	13.08	13.10
화학	10.45	7.77	8.17	9.75	8.42	8.48
철강	1.33	0.37	2.02	3.41	1.44	0.87
비철금속	1.81	1.52	1.20	1.53	1.02	0.87
기계	3.98	2.91	4.43	5.60	6.51	7.60
운송	0.81	0.37	0.65	0.99	1.72	1.48
전기·전자	2.45	2.90	11.16	20.64	31.87	35.48
기타	1.30	2.01	1.22	1.07	1.38	1.31

[그림 4] 중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Vernon(1966)의 제품주기설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즉 1980년에 원재료 중심의 수출에 치중되어 있던 중국의 산업이 1990년대에는 저기술 경공업중심의 성장을 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점차 자본집약적이고 기술력이 향상된 산업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산업구조도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중국의 대한국 수출비중 (단위 : %)

산업 \ 연도	1995	2000	2002
에너지	11.64	9.11	8.60
식음료	10.68	15.12	12.68
석유	27.89	17.99	18.84
나무, 제지	3.52	3.88	4.58
화학	12.21	9.79	11.47
철강	16.88	6.20	2.87
비철금속	3.93	3.53	3.93
기계	2.21	2.94	4.17
운송	0.25	0.50	0.56
전기·전자	17.07	50.60	50.89
기타	0.31	0.31	0.31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비중은 어떠한 변화추세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1995년에는 에너지산업, 식음료산업, 섬유산업, 철강산업 등의 원재료 중심의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에너지산업과 철강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이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보면 1995년과 2002년 모두 섬유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기계산업의 수출비중은 1995년 2.21%에서 2002년 4.17%로 그 비중은 비록 작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보면 중국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섬유산업이나 전기·전자산업 부문이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한국보다 값싼 단가를 경쟁력으로 수출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전기·전자산업의 경우는 FDI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 공장이전 등으로 수출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중국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 내수시장은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산업들은 한국에 있어서도 수출주력산업이니 만큼 한국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2. 시장점유율 분석

시장점유율이란 특정 수출시장에서 한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비중이 높을수록 비교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은 특정한 수출시장에서 각국의 무역경쟁력을 단순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이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세계시장점유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990년 1.9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 2.79%를 기록하였지만 2002년에는 2.59%로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990년 2.59%에서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여 2002년 현재에는 5.95%를 차지하고 있다.⁵⁾

둘째, 1990년에서 2002년의 기간 중 중국의 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섬유산업이 6.94%에서 19.64%로, 기계산업이 0.49%에서 3.34%로, 운송산업이 0.12%에서 0.89%로, 전기·전자산업이 1.21%에서 10.01% 등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 급격한 시장점유율의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과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이미 추월하였고, 다른 산업에서도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급속하게 추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세계 시장점유율의 확대는 해외공장의 중국으로의 진입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크게 성장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기존의 공업국들이 갖고 있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기계 및 운송산업이 급속하게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업능력확충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1980년-1982년을 제외하고는 1980년대에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수출규모가 컸다. (한국은행, 2001)

셋째, 섬유산업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 7.62%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02년에는 3.72%를 기록하였다. 반면 중국은 1990년 6.94%에서 두드러진 상승추세를 보임으로써 2002년에는 19.64%로 오히려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지향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던 섬유산업이 지금은 사양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한국은 많은 품목에서 중국에 대해 경쟁력이 상실되었지만 섬유산업과 기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산업은 1990년 1.35%에서 2002년에는 2.70%까지 상승하였고, 운송산업은 1990년 1.19%에서 2002년에는 2.98%로 급성장하였다. 이는 한국의 자본력 및 기술력의 성장과 더불어 대규모 중국시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품목군별 세계시장점유율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섬유산업에서 한국은 섬유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점유율의 절대적인 크기에서도 중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섬유산업의 성격상 후발국인 중국이 시장에서 값싼 노동력과 신규투자를 통해 후발국으로서의 우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단 섬유품목군의 경우는 다른 섬유산업의 품목에 비해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이 많고, 이 품목군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중국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

<표 7>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세계시장점유율 (단위 : %)

산업 \ 연도	한국				중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전체	1.94	2.53	2.79	2.59	1.69	3.14	4.67	5.95
에너지	0.19	0.69	1.47	1.11	1.48	1.43	1.18	1.42
식음료	0.64	0.56	0.55	0.47	2.55	2.52	3.54	3.50
섬유	7.62	5.47	4.73	3.72	6.94	13.21	17.58	19.64
나무, 제지	1.74	1.45	1.37	1.14	2.85	5.91	10.24	12.63
화학	1.20	2.07	2.50	2.18	1.10	2.32	3.17	3.68
철강	2.99	3.16	4.10	3.52	0.94	2.99	2.55	1.93
비철금속	0.43	0.82	1.32	1.44	0.69	1.73	1.90	2.33
기계	1.35	2.29	2.51	2.70	0.49	1.26	2.31	3.34
운송	1.19	2.45	2.94	2.98	0.12	0.34	0.89	0.89
전기·전자	3.41	4.54	4.69	4.68	1.21	3.31	6.39	10.01
기타	0.66	1.25	0.73	0.57	0.62	0.73	1.29	1.67

주: 세계시장점유율=해당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전 세계의 품목별 수출액

〈표 8〉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품목군별 세계시장점유율 (단위 : %)

산 업	연 도	한 국				중 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섬유		7.62	5.47	4.73	3.72	6.94	13.21	17.58	19.64
섬유		6.45	9.55	9.73	8.37	2.34	5.15	6.43	8.35
의류		5.48	2.28	2.06	1.48	9.45	16.49	20.02	21.32
니트류		6.81	3.71	2.66	2.11	7.76	13.89	18.30	19.67
가펫		3.14	3.31	4.08	3.52	12.94	13.57	15.82	18.78
가죽		13.64	4.95	3.22	2.08	7.77	20.48	29.89	31.83
기계		1.35	2.29	2.51	2.70	0.49	1.26	2.31	3.34
금속구조물		1.96	5.87	3.03	2.92	0.47	1.51	2.96	4.41
기타 건설기기		1.86	2.16	2.14	1.96	1.40	3.21	6.26	8.38
엔진		0.50	1.20	1.87	1.94	0.15	0.57	1.39	2.32
농업장비		0.15	0.23	0.44	0.51	0.17	0.54	0.71	0.88
기계도구		0.48	1.22	1.48	1.76	0.60	1.11	1.54	2.08
건설장비		1.15	2.68	2.55	2.61	0.32	0.86	1.56	2.45
특수목적용 장비		0.56	1.52	1.81	2.08	0.38	0.77	1.38	2.25
군수장비		0.21	0.56	0.56	0.85	1.21	0.40	0.37	0.82
전기·전자		3.41	4.54	4.69	4.68	1.21	3.31	6.39	10.01
정밀기기		0.52	0.63	0.59	0.63	0.28	0.95	1.81	2.58
시계		1.43	1.62	1.21	1.02	5.36	7.98	15.18	15.31
광학		1.48	2.22	1.99	1.89	0.87	5.02	9.15	12.15
전자부품		8.19	10.69	8.81	7.46	0.14	0.48	1.45	2.70
소비전자		7.86	6.75	5.18	5.05	4.01	8.60	14.64	19.92
통신장비		3.65	3.59	5.31	8.69	1.45	3.76	5.80	10.19
컴퓨터		2.44	2.69	5.30	4.85	0.25	2.49	6.84	12.66
전자장비		1.95	2.04	2.11	2.17	1.90	6.09	11.85	12.81
전기장치		1.29	3.60	1.75	1.96	0.83	3.54	7.65	10.27
운송		1.19	2.45	2.94	2.98	0.12	0.34	0.89	0.89
운송기기 부품		0.51	0.57	1.26	1.38	0.06	0.22	0.60	0.92
자동차		1.43	3.41	4.02	4.05	0.10	0.31	0.78	0.85
상업용 운송기기		1.47	2.35	1.74	1.58	0.26	0.62	1.73	0.98
배		9.43	14.76	20.46	22.93	0.25	1.26	1.90	3.61
항공		0.56	0.67	0.40	0.30	0.05	0.35	0.42	0.41

둘째, 기계산업의 품목들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그 점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속구조물과 기타 건설기계에서 중국은 성장을 이룬 반면 한국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국의 시장확대로 인해 한국이 입지가 그만큼 작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품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기계산업의 경우 산업의 성격상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진입장벽 또한 높은 산업⁶⁾이므로 이 산업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하다.

셋째,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을 제외한 전 품목군에 있어서 중국이 시장점유율이 높다. 이는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전기·전자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다국적 공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이다.

넷째, 운송산업의 경우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의 시장점유율보다 우위에 있음이 확인하다. 또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볼 때 중국은 국가의 규모와 무역의 규모가 거대한 만큼 운송산업을 비롯한 몇 가지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수출확대가 한국의 수출점유율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3.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지수 크기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국가간 비교우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수로서 당해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진다면 당해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섬유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990년 3.9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1.44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보임으로써 섬유산업은 여전히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수의 하락추세는 중국의 저가 섬유제품에 대한 경쟁력의 상실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기계산업과 운송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지수의 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경쟁력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은 1990년 0.69에서 2002년에는 1.04로 증가하였고, 운송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은 1990년 0.61에서 2002년에는 1.15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990년 1.75에서 2002년에는 1.8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으로서 한국의 수출산업에서 전기·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확인할 수 있다.

6) 신현수, 이원복(2003)은 OECD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25개의 각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첨단기술산업, ICT산업, 중고위 기술산업, 중저위기술산업, 저위기술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기계산업은 중고위기술산업으로 분류된다.

〈표 9〉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산업	연도	한국				중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에너지		0.10	0.27	0.53	0.43	0.88	0.45	0.25	0.24
식음료		0.33	0.22	0.20	0.18	1.51	0.80	0.76	0.59
섬유		3.92	2.16	1.70	1.44	4.11	4.21	3.77	3.30
나무, 제지		0.90	0.57	0.49	0.44	1.69	1.88	2.19	2.12
화학		0.62	0.82	0.90	0.84	0.65	0.74	0.68	0.62
철강		1.54	1.25	1.47	1.36	0.56	0.95	0.55	0.33
비철금속		0.22	0.32	0.47	0.56	0.41	0.55	0.41	0.39
기계		0.69	0.91	0.90	1.04	0.29	0.40	0.49	0.56
운송		0.61	0.97	1.05	1.15	0.07	0.11	0.19	0.15
전기·전자		1.75	1.80	1.68	1.81	0.72	1.05	1.37	1.68
기타		0.34	0.50	0.26	0.22	0.37	0.23	0.28	0.28

둘째, 중국은 섬유산업의 무역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섬유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990년 4.11에서 2002년 현재에는 3.30이라는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기계산업과 운송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경쟁력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은 1990년 0.29에서 2002년에는 0.56으로 증가하였고, 운송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은 1990년 0.07에서 2002년에는 0.1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기·전자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가장 높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수의 값이 1990년 0.72에서 그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 2002년에는 1.68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 뿐만 아니라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도 무역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섬유산업, 전기·전자산업, 운송산업, 기계산업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첫째, 섬유산업에서 섬유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국과 중국 모두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의류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국과 중국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류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에 2.28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0.57의 값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1990년 5.6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3.58의 값을 보이고 있다. 가죽품목의 경우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에 7.02로 아주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0.80으로 급강하 하였다. 반면 중국의 가죽품목은 비교적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0>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품목군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연도 산업	한국				중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섬유	3.92	2.16	1.70	1.44	4.11	4.21	3.77	3.30
섬유	3.32	3.78	3.49	3.23	1.39	1.64	1.38	1.40
의류	2.82	0.90	0.74	0.57	5.60	5.25	4.29	3.58
니트류	3.51	1.47	0.96	0.82	4.60	4.42	3.92	3.30
가펫	1.62	1.31	1.47	1.36	7.68	4.32	3.39	3.16
가죽	7.02	1.96	1.16	0.80	4.61	6.52	6.41	5.35
기계	0.69	0.91	0.90	1.04	0.29	0.40	0.49	0.56
금속구조물	1.01	2.32	1.09	1.13	0.28	0.48	0.64	0.74
기타 건설기기	0.96	0.86	0.77	0.76	0.83	1.02	1.34	1.41
엔진	0.26	0.47	0.67	0.75	0.09	0.18	0.30	0.39
농업장비	0.08	0.09	0.16	0.20	0.10	0.17	0.15	0.15
기계도구	0.25	0.48	0.53	0.68	0.36	0.35	0.33	0.35
건설장비	0.59	1.06	0.92	1.01	0.19	0.27	0.33	0.41
특수목적용 장비	0.29	0.60	0.65	0.81	0.23	0.24	0.30	0.38
군수장비	0.11	0.22	0.20	0.33	0.72	0.13	0.08	0.14
전기전자	1.75	1.80	1.68	1.81	0.72	1.05	1.37	1.68
정밀기기	0.27	0.25	0.21	0.25	0.17	0.30	0.39	0.43
시계	0.74	0.64	0.43	0.39	3.18	2.54	3.25	2.57
광학	0.76	0.88	0.72	0.73	0.52	1.60	1.96	2.04
전자부품	4.21	4.23	3.16	2.88	0.09	0.15	0.31	0.45
소비전자	4.04	2.67	1.86	1.95	2.38	2.74	3.14	3.35
통신장비	1.88	1.42	1.91	3.36	0.86	1.20	1.24	1.71
컴퓨터	1.26	1.06	1.90	1.87	0.15	0.79	1.47	2.13
전자장비	1.00	0.81	0.76	0.84	1.13	1.94	2.54	2.15
전기장치	0.66	1.43	0.63	0.76	0.49	1.13	1.64	1.72
운송	0.61	0.97	1.05	1.15	0.07	0.11	0.19	0.15
운송기기 부품	0.26	0.23	0.45	0.53	0.04	0.07	0.13	0.16
자동차	0.73	1.35	1.44	1.57	0.06	0.10	0.17	0.14
상업용 운송기기	0.75	0.93	0.62	0.61	0.15	0.20	0.37	0.16
배	4.85	5.84	7.35	8.86	0.15	0.40	0.41	0.61
항공	0.29	0.26	0.14	0.12	0.03	0.11	0.09	0.07

둘째, 기계산업을 살펴보면 한국은 금속구조물품목에서 중국보다 높은 비교우위수준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기타 건설장비에서 한국보다 높은 비교우위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기계품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비교우위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특수목적용장비가 1990년 0.29에서 1995년 0.60, 2000년 0.65, 2002년 0.8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셋째, 전기·전자산업에서 전자부품과 소비전자품목의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수준이 매우 높지만 그 비교우위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자부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4.21에서 2002년 2.88로 꾸준히 하락하였고, 소비전자품목은 1990년 4.04에서 2002년 1.95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부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0.09에서 2002년 0.45로 증가하였고, 소비전자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또한 2.38에서 2002년에는 3.35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전자부품과 소비전자품목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무역경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신장비품목의 경우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더 높은 지수 값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컴퓨터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살펴보면 1990년 한국은 1.26으로서 중국의 0.15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02년에는 한국이 1.87, 중국이 2.13의 값을 보임으로써 양국간 비교우위수준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송산업의 경우 모든 품목군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선박은 꾸준히 비교우위가 상승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들 품목에 대한 무역경쟁력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는 지수이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특화지수가 모든 연도에 걸쳐 0보다 큰 값을 나타냄으로써 수출특화의 정도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 무역특화지수는 0.01이었지만 2000년에는 0.06의 값을 나타내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76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02년에는 0.43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0보다 큰 값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수출특화품목이지만 지수의 값은 하락하여 그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섬유산업에 대한 경쟁력의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계산업의 경우는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1990년 -0.29에서 2002년에는 0.2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계산업은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수출전략 산업군으로 대두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송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양(+)의 값을 보임으로

써 수출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송산업과 전기·전자산업 모두의 지수의 값이 상승하여 두 산업은 한국의 수출주력 산업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의 산업구조의 모습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고도화된 경제로 인해 산업구조가 고기술과 풍부한 자본이 요구되는 산업구조로 전환되어감으로써 선진국의 형태에 근접해 감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도에 걸쳐 0보다 큰 값을 나타냄으로써 수출특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수의 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특화지수의 값은 0.11이었고, 2002년에는 0.19의 값을 기록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62에서 2002년에는 0.67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섬유산업은 수출특화산업으로서 그 경쟁력 또한 강화되어 섬유산업이 수출주력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기계산업과 운송산업의 경우는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모두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수입특화산업이지만 지수의 값이 모두 상승하여 수입특화의 정도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계산업과 운송산업은 수입대체의 진전과 수출상품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54에서 2002년에는 -0.13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운송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49에서 2002년은 -0.1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0.13에서 2002년 현재에는 0.2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기·전자산업산업은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수출전략 산업군으로 대두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표 11〉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

연도 산업	한 국				중 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전체	0.01	0.00	0.07	0.06	0.11	0.08	0.20	0.19
에너지	-0.87	-0.74	-0.56	-0.63	0.27	0.13	-0.39	-0.32
식음료	-0.46	-0.55	-0.54	-0.61	0.25	0.05	0.17	0.12
섬유	0.76	0.54	0.57	0.43	0.62	0.56	0.62	0.67
나무, 제지	0.19	-0.08	-0.02	-0.13	0.37	0.51	0.61	0.67
화학	-0.26	-0.07	0.10	0.05	-0.19	-0.17	-0.10	-0.08
철강	-0.04	-0.17	0.00	-0.09	-0.33	-0.24	-0.41	-0.64
비철금속	-0.72	-0.67	-0.47	-0.45	-0.13	-0.22	-0.43	-0.44
기계	-0.29	-0.21	0.13	0.21	-0.54	-0.50	-0.12	-0.13
운송	0.61	0.69	0.80	0.76	-0.49	-0.49	0.21	-0.11
전기·전자	0.21	0.29	0.22	0.25	-0.13	0.08	0.24	0.23
기타	-0.26	-0.19	-0.29	-0.47	-0.24	-0.31	-0.06	-0.19

이처럼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수출특화의 정도는 강화되었고, 수입특화의 정도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경제가 외자유치를 통해 급부상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을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다.

다음은 섬유산업, 전기·전자산업, 운송산업, 기계산업을 품목군별로 구분하여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첫째, 한국의 섬유산업은 1990년에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특화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 이르러서는 섬유품목과 가죽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특화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섬유산업은 섬유품목만이 수입특화되어 있고, 나머지 품목은 수출특화되어 있어서 한국의 경우와 대조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값싼 의류 및 봉제품목의 수출이 특화되면서 섬유품목을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한국은 섬유품목을 수출하면서 의류 및 봉제품목 등의 완제품은 수입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기계산업을 살펴보면 현시비교우위지수(RCA)가 높게 나타났던 금속구조물품목의 경우 무역특화지수(TSI)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목적용 장비품목은 수입특화품목이지만 수입특화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서 수출상품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기계산업에서는 기타 건설품목이 수출특화품목으로서 수출특화지수(TSI)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타 건설품목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수출 주력제품군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산업의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수입특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기·전자산업에서 한국은 소비전자품목, 통신장비품목, 컴퓨터품목이 수출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문제점과 같이 한국의 소비전자품목의 수출특화지수(TSI)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소비전자품목의 수출특화지수(TSI)는 점점 상승하여 한국을 추격해 오고 있음이 분명해 진다.

<표 12>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품목군별 무역특화지수(TSI)

산 업	연 도	한 국				중 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섬유		0.76	0.54	0.57	0.43	0.62	0.56	0.62	0.67
섬유		0.51	0.52	0.57	0.54	-0.25	-0.26	-0.22	-0.07
의류		0.96	0.53	0.43	0.10	0.94	0.91	0.85	0.86
니트류		0.97	0.76	0.68	0.37	0.89	0.92	0.89	0.89
가펫		0.81	0.67	0.80	0.71	0.89	0.77	0.80	0.85
가죽		0.83	0.49	0.46	0.20	0.75	0.79	0.82	0.85

기계	-0.29	-0.21	0.13	0.21	-0.54	-0.50	-0.12	-0.13
금속구조물	0.39	0.73	0.50	0.45	-0.49	-0.22	0.42	0.56
기타 건설기기	0.04	0.05	0.19	0.13	0.20	0.28	0.51	0.52
엔진	-0.67	-0.50	-0.01	0.00	-0.87	-0.74	-0.30	-0.20
농업장비	-0.81	-0.71	-0.15	-0.09	-0.37	-0.09	-0.01	-0.13
기계도구	-0.77	-0.64	-0.45	-0.26	-0.54	-0.75	-0.53	-0.63
건설장비	-0.31	0.05	0.43	0.50	-0.59	-0.64	-0.29	-0.26
특수목적용 장비	-0.73	-0.58	-0.37	-0.18	-0.75	-0.80	-0.63	-0.63
군수장비	-0.89	-0.67	-0.67	-0.75	0.36	0.72	-0.63	0.76
전기·전자	0.21	0.29	0.22	0.25	-0.13	0.08	0.24	0.23
정밀기기	-0.68	-0.74	-0.67	-0.60	-0.67	-0.41	-0.20	-0.18
시계	0.03	0.05	0.06	-0.01	0.13	0.15	0.61	0.64
광학	-0.08	-0.27	-0.41	-0.45	-0.12	0.24	0.21	0.14
전자부품	0.10	0.38	0.16	0.06	-0.76	-0.53	-0.56	-0.60
소비전자	0.86	0.80	0.71	0.64	0.49	0.58	0.90	0.91
통신장비	0.34	0.29	0.46	0.66	-0.44	-0.29	0.10	0.17
컴퓨터	0.26	0.34	0.46	0.52	-0.40	0.28	0.40	0.41
전자장비	-0.10	-0.11	-0.09	-0.10	-0.24	0.07	0.31	0.28
전기장치	-0.14	0.29	-0.15	-0.15	-0.22	0.12	0.31	0.25
운송	0.61	0.69	0.80	0.76	-0.49	-0.49	0.21	-0.11
운송기기 부품	-0.09	-0.29	0.21	0.20	-0.73	-0.73	-0.31	-0.36
자동차	0.90	0.93	0.96	0.91	-0.38	-0.42	0.41	0.03
상업용 운송기기	0.49	0.60	0.60	0.63	-0.42	-0.28	0.49	0.09
배	0.65	0.58	0.95	0.92	-0.64	-0.28	0.53	0.83
항공	-0.54	-0.68	-0.50	-0.61	-0.92	-0.75	-0.71	-0.82

넷째, 운송산업에 대한 무역특화지수(TSI)의 분석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분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자동차품목, 선박품목, 상업용 운송기기품목의 수출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특화품목이지만 선박품목은 수입특화품목에서 수출특화품목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수출전략제품군으로 대두되고 있다.

5. 산업 내 무역지수(GL) 분석

GL지수는 산업 내 무역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지수가 1의 값에 가까워질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고, 양국 간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⁷⁾ 한·중간 산업 내 무역지수의 분석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한·중간 산업 내 무역지수를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섬유산업은 0.88, 전기·전자산업은 0.67, 운송산업은 0.63, 기계산업은 0.43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1995년 0.69에서 2002년에는 0.88을 기록하여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품목군별로는 가펩품목과 가죽품목의 산업 내 무역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계산업도 섬유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업 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계산업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1995년 0.21에서 2002년에는 0.43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금속구조물품목과 기타 건설기기품목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거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다. 전기·전자 산업은 통신장비품목군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산업 내 무역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운송산업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1995년 0.12였지만 급격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0.63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 발달이 중국으로의 부품수입의 증가를 유발하였고, 중국은 이를 가공하여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중국의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고, 무역경쟁력에서도 한국과 중국간 격차가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3>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 및 품목군의 GL지수⁸⁾

산 업 \ 연 도	1995	2000	2002
섬유	0.69	0.65	0.88
섬유	0.65	0.51	0.54
의류	0.25	0.38	0.34
니트류	0.27	0.15	0.11
카펫	0.73	0.45	0.75
가죽	0.47	0.39	0.67

7) 한국의 산업 내 무역에 관한 연구는 김승진(1988), 오형석·오정훈(1998), 김치호·최요철·신현열(2000), 이준엽·김홍기(2001), 이준엽(2003) 등의 연구가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무역이 1992년 한·중 수교 후부터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산업 내 무역지수의 분석을 1995년부터 시작하였다.

기계	0.21	0.36	0.43
금속구조물	0.07	0.65	0.99
기타 건설기기	0.76	0.78	0.92
엔진	0.07	0.36	0.42
농업장비	0.28	0.26	0.13
기계도구	0.09	0.22	0.15
건설장비	0.12	0.14	0.11
특수목적용 장비	0.06	0.10	0.14
군수장비	0.12	0.04	0.14
전기·전자	0.72	0.79	0.67
정밀기기	0.60	0.65	0.75
시계	0.53	0.41	0.42
광학	0.90	0.54	0.79
전자부품	0.26	0.45	0.43
소비전자	0.73	0.97	0.58
통신장비	0.71	0.61	0.33
컴퓨터	0.96	0.91	0.61
전자장비	0.75	0.76	0.72
전기장치	0.68	0.88	0.79
운송	0.12	0.55	0.63
운송기기 부품	0.10	0.43	0.32
자동차	0.19	0.78	0.48
상업용 운송기기	0.06	0.27	0.56
배	0.56	0.76	0.27

IV. 결 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한중간 무역경쟁력을 통하여 무역에서의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중간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비중이 높고 대중 무역에서 주요 경쟁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전기전자·운송·기계산업을 분석대상으로 무역경쟁력을 평가하였고, 산업 내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한중간 무역경쟁력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의 섬유산업은 시장점유율과 현시비교

우위 면에서 모두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0보다 큰 값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수출특화품목이지만 그 지수의 값은 하락하여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섬유산업은 무역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특화산업으로서 그 경쟁력 또한 강화되고 있어 섬유산업이 수출주력 산업군으로 대두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기계산업은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무역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대두된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기계산업은 수입특화산업이지만 무역경쟁력이 증가하면서 수입특화의 정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지수의 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경쟁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양(+)의 값을 보였으며 그 지수의 값 또한 상승하여 운송산업이 수출특화산업으로서 한국의 수출주력 산업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값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경쟁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수입특화산업이지만 지수의 값은 상승하여 수입특화의 정도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기·전자 산업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만큼 한국의 전기·전자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양(+)의 값을 보였으며 그 지수의 값 또한 상승하여 전기·전자 산업이 수출특화산업으로서 한국의 수출주력 산업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전기·전자산업은 산업구조가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수출전략 산업군으로 대두된 산업임이 확인되었다.

산업 내 무역지수(GL)를 이용한 한중간 무역구조에 관한 분석결과 섬유제품의 GL지수가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냄으로써 섬유제품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컴퓨터·사무용기기제품과 전자기계제품에 대한 GL지수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산업 내 무역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 현지의 공장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각종 부품들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완성한 다음 다시 되파는 가공무역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산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에서 한국의 무역경쟁력이 중국보다 아직까지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한국은 정체해 있는 품목이 중국의 경우는 점차 경쟁력을 얻어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산업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 집약적 구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산업구조가 서로 상이하여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이행됨과 동시에 기술발전이 주력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중간의 산업 내 무역에 있어서도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에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권영민, 『한중일 제조업의 대미수출 경쟁력』, 한국경제연구원, 1999.
- 김승진, 『산업내무역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51) 88-04, 한국경제연구원, 1988.
- 김치호, 최요철, 신현열, 『한국의 산업내무역:변동 추이와 결정요인』, 『금융경제연구』, 2000.
- 산업은행, 『한·중·일 삼국의 기술경쟁력 분석』, 2004.
- 신현수, 이원복,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 심영섭, 오영섭,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2001.
- 오근엽, 주혜영, 『한국 제조업의 산업내무역 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 46집, 제4호, 1999.
- 오영석, 오정훈, 『한국 제조업의 산업내 무역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1998.
- 이준엽, 김홍기,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무역구조 비교분석-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3집, 2001,
- 이준엽, 『한·중·일 산업내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동북아 국제분업체계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 10권, 2003, pp. 209-226.
- 주경원, 『기술집약도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장기적 수출경쟁력 변화』, 『국제무역연구』, 2002.4.
- 최영섭,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본 제조업 경쟁력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2001.
-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수출구조 비교분석과 향후 과제』, 2001.
- balassa, Bela, “an Empirical Demonstration of Classic Comparative cost theor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 45, 1963
- Grubel, H. G. and P. J. Lloyd, Intra-industry Trade :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London: Macmillan, 1975
- Helpman E. and Krugman P., Market structure and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IT Press ,1985 .
- Michaeky, M., “Multilateral Balancing in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1962
-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LXXX, 1966, pp.190-207.